

PORTFOLIO

권세미



권세미

연극 연출가, 미디어 아티스트

대학에서 미학을 대학원에서 연극연출을 전공하고 연출이자 드라마터그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과 몸의 감각을 주제로 탐색하는 ‘사막별의 오로라’의 창작 멤버로 참여하여 여성에게 강요되는 미의 기준을 다룬 <메이크업 투 웨이크업> 시리즈와 도시의 빈곤 문제를 다룬 <산책자의 행복>, 젊은 여성의 자살을 다룬 <더스트>의 드라마터그 및 영상디자이너로서 참여하였고, 현재도 공동창작과 과정 중심의 작업을 탐색하고 있다.

2011년 졸업 공연작을 재공연한 <망토>(2019)는 젠더와 성적체성 담론을 파고들어 크로스캐스팅을 통해 ‘여자가 되는’ 과정을 노출함으로써 정체성의 수행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중심을 해체하는 여성 서사를 발굴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질문을 던지는 것은 내가 연극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미래 극장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가운데, AI, VR 등의 뉴미디어 기술을 연극에 도입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2023년 우란문화재단에서 제작한 <비비비>에서는 버추얼휴먼 디자이너로서, 배우의 디지털트윈을 제작하여 가상 인간과의 상호 연기를 실험하였고, 아트&테크놀로지 연구를 통해 생성형 AI 및 게임엔진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시도하고 있다.

VR 영화 <소녀램프라디오>(2023)에서는 드라마터그를 맡아 VR의 연극성과 관객 참여 방식을 탐구하였고, 또한 VR 안에서 스토리텔링과 대안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VR 콘텐츠 <Findroom> 및 ‘생성형 AI와 게임엔진으로 연극만들기’를 주제로 <Play with AI>를 제작하여 2023 HCI Creative Award에 전시하기도 하였다.

향후 연출 작업을 이어나가며 공연에 접목 가능한 기술을 연극계에 소개하는 작업을 계획 중이다. 앞으로도 뉴미디어 기술과 극장의 결합을 통해 관객의 경험을 강화하고 관객의 범주를 확장하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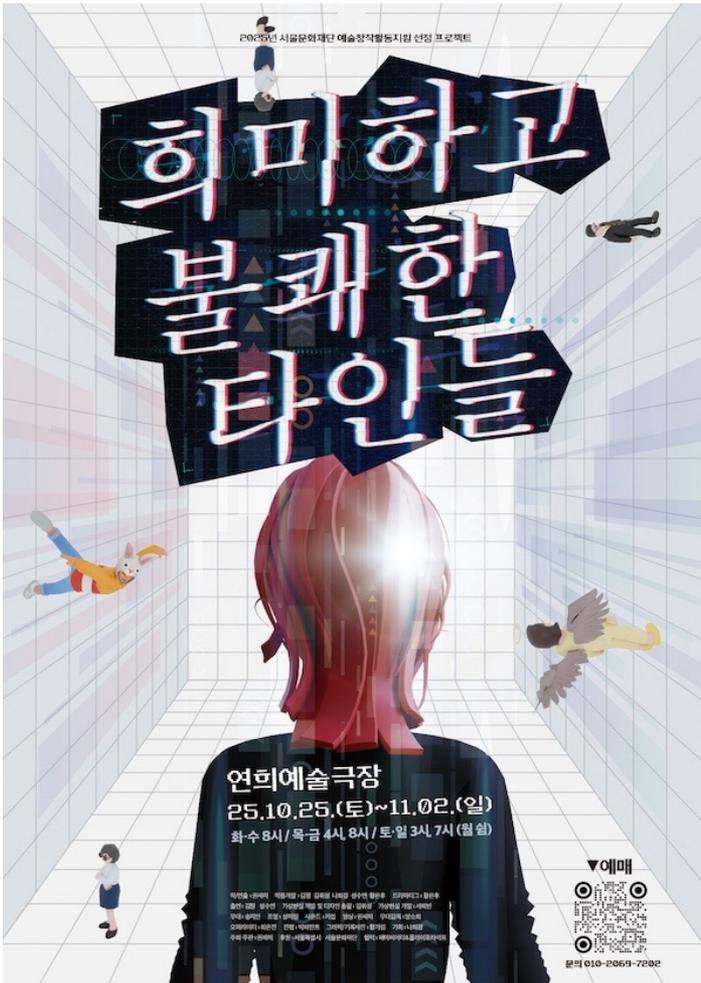
Theatre

- 희미하고 불쾌한 타인들 2025
- 비비비 2023
- 더스트 2022
- 망토, 2019
- 산책자의 행복, 2019
- Makeup to Wake up 2, 2019
- Makeup to Wake up 1, 2017
- 남은 한조각의 세계, 2017
- 10분릴레이 희곡 페스티벌 낭독공연, 2016
- 강박3:첫경험, 2016
- 붓, 2015



융합 작업

- <소녀램프라디오> 2022
- <The vacance> 2023



《희미하고 불쾌한 타인들》은 디지털 민주주의의 복잡성과 모호함을 관객의 몸과 선택으로 체감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답 없음’의 국면에서 집단이 결정을 유예·강행·실패하는 순간들을 시뮬레이션했고, 의도적으로 삽입한 글리치와 합의 실패의 감각을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모순을 드러냈다. 보알의 포럼연극을 디지털 환경으로 이식한 인터랙션 설계는 관객의 발화와 선택이 서사와 결말을 실제로 변화시키도록 구성되었고, YES/NO 집단 선택과 분기형 엔딩은 ‘합의’ 자체를 하나의 드라마로 전면화했다. 세이프 워드와 휴식 동선, 가이드 체계를 공연 구조에 내장해 고강도 의제들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했으며, 이 안전장치는 대체로 유효하게 작동했다.

형식적으로는 XR/MR 전환, 라이트·사운드·자막의 동기화가 글리치-안정-붕괴-환대로 이어지는 감각적 호흡을 완성했으며, YES or NO로 대비되는 분기형 엔딩을 통해 정치적 상상력의 스펙트럼을 제시했다. 요컨대 본 작업은 “이해는 불완전한 채로 함께 하는 것”이라는 문장을 관객이 직접 발화·선택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초기 기획의도—디지털 민주주의의 모호성을 미학적·체험적 차원에서 드러내고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을 충실히 구현하였다.

공연정보페이지

<https://blog.naver.com/playforlife/224024961380>

또한 ‘가상관계재활센터’라는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함에 있어, 관객들이 흥미를 가지고 진입할 수 있도록 ‘관계성향 테스트’를 설계하여 홍보 및 관객용으로 배포하였다.

설문 페이지 <https://answer.moaform.com/answers/Mzo4pG>

기술적으로는 Meta Quest 3를 기반으로 한 멀티 유저 VR 환경을 안정화하여, 여러 관객이 하나의 가상 공간 안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존재하고 반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Unity 엔진을 이용해 공간 전환과 인터랙션 흐름을 세밀하게 조정하면서,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환경이 살아 움직이듯 변하는 감각을 실험했다. 또한 글리치 시각 효과와 서사 구조에 따른 큐 진행 매커니즘을 설계해, 공연의 리듬과 정서적 밀도를 세밀하게 조율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MR과 VR 환경을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전환 실험을 통해 현실과 가상이 교차하는 순간의 감각적 긴장을 확장했으며, 이러한 시도가 향후 작품의 기술적 확장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자기 손으로 믿음을 무너뜨릴 때, 새로운 문이 열린다.”

세계 최초의 가상세계 관계 재할 센터.

공론장이 무력화되고, 타인과의 관계가 점점 흐려지는 시대.
참가자들은 ‘공감성 수치’를 얻기 위해 프로그램에 입소하지만,
곧 반복되는 물리치와 수상한 참가자의 등장이 세계를 혼돈다.

센터의 설계자 유진과, 끝내 반대하는 지호.

두 사람의 균열 속에서, 관객은 직접 선택하고 탐험하며
지호가 남긴 관리자코드의 흔적을 따라가야 한다.

물리치

디지털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류나 예상치 못한 고장을 의미하는 용어.
이 극에서도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뒤돌림 및 오류를 의미한다.

‘희미하고 불쾌한 타인’들과 서로의 영향 하에서 살아가는 감각에 대한 탐구

<희미하고 불쾌한 타인들>은 단절과 불확실성이 커진 현대사회에서
타인에게 느끼는 감각을 중심으로 디지털 민주주의와 그 속에서의
인간 관계의 복잡성과 모호함을 탐구하는 **인터랙티브 XR 연극**이다.

관객은 ‘관계 재할 센터’의 참여자로 입소하여
타인을 파편 정보로 해석하고, 감정을 추측하며,
선택하고, 오해하고, 단절을 경험한다.

관계의 시도는 언제나 어긋나지만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그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희미한 감각이다.

실시간 상호작용, 아바타로의 전환, MR(혼합현실, mixed reality),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오는 응시의 순간까지,
<희미하고 불쾌한 타인들>은 관객 스스로가 실험의 주체이자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https://희미하고 불쾌한 타인들 **관객 안내**

* 본 공연은 메타퀘스트(HMD(head mounted display))를
착용하고 참여하는 공연입니다.

* 안경을 착용하실 수 있으나
가능하면 렌즈 착용을 권장합니다.

* VR(가상현실) 콘텐츠의 특성상
3D 멀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든 사람들

작/연출 권세미

작품개발 김경 김휘성 나희경

성수연 황은후

드라마티크 황은후

출연 김경 성수연

가상현실 개발 및 디자인 송광 김휘성

가상현실 개발 서혜민

무대 송지인

조명 심미림

시운드 카입

영상 권세미

무대감독 양소희

오퍼레이터 최은진

진행 박하민트

그래픽/기술사진 활기림

기획 나희경

주최/주관 권세미

우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업믹 페미씨어터&플레이포라프

작/연출 권세미

권세미는 연극 연출가이자 드라마티크로서,
늘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지는 시선을 무대에
불러온다. 여성과 몸의 감각, 젠더와 정체성,
도시의 빈곤과 젊은 세대의 절망 등 사회적
현실을 관통하는 주제를 탐구하면서도 이를
단순한 재현이 아닌 공동창작과 과정 중심의 실험으로 풀어내는 것이 작업의 특징이다.
최근에는 AI, VR, 게임엔진 등 뉴미디어 기술을
연극에 접목하는 실험을 이어가며, 미래 극장
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그는 이번 공연에
서 뉴미디어를 매개로 낯선 방식으로 타인을
마주하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망토> <웃> <우>

<메이크업 투 웨이크업 1, 2> <드라마티크>

<산책자의 행복> <드라마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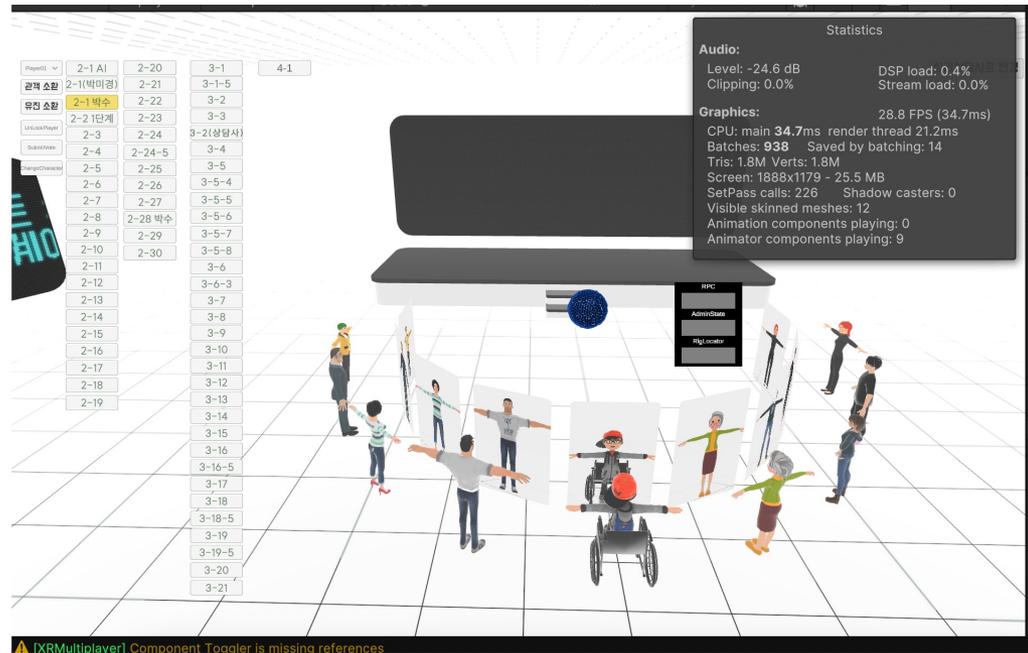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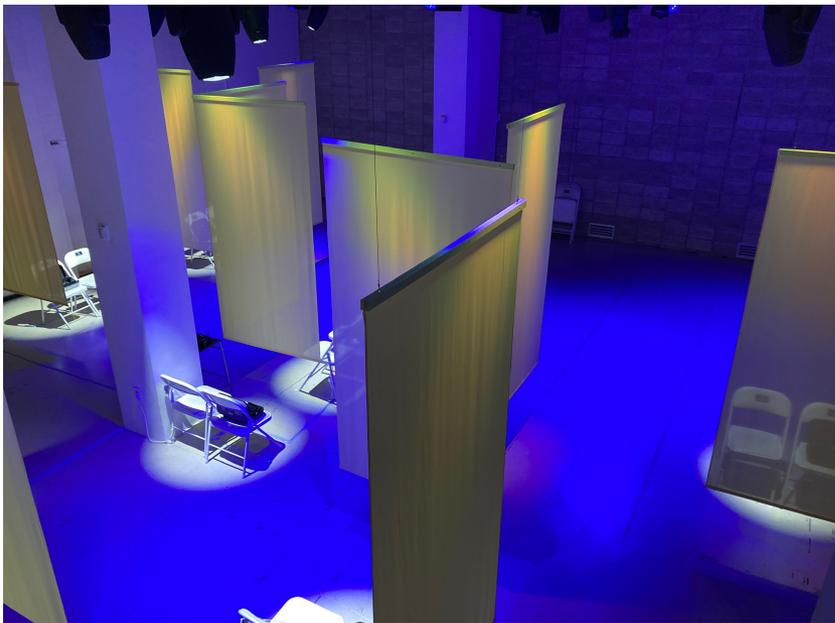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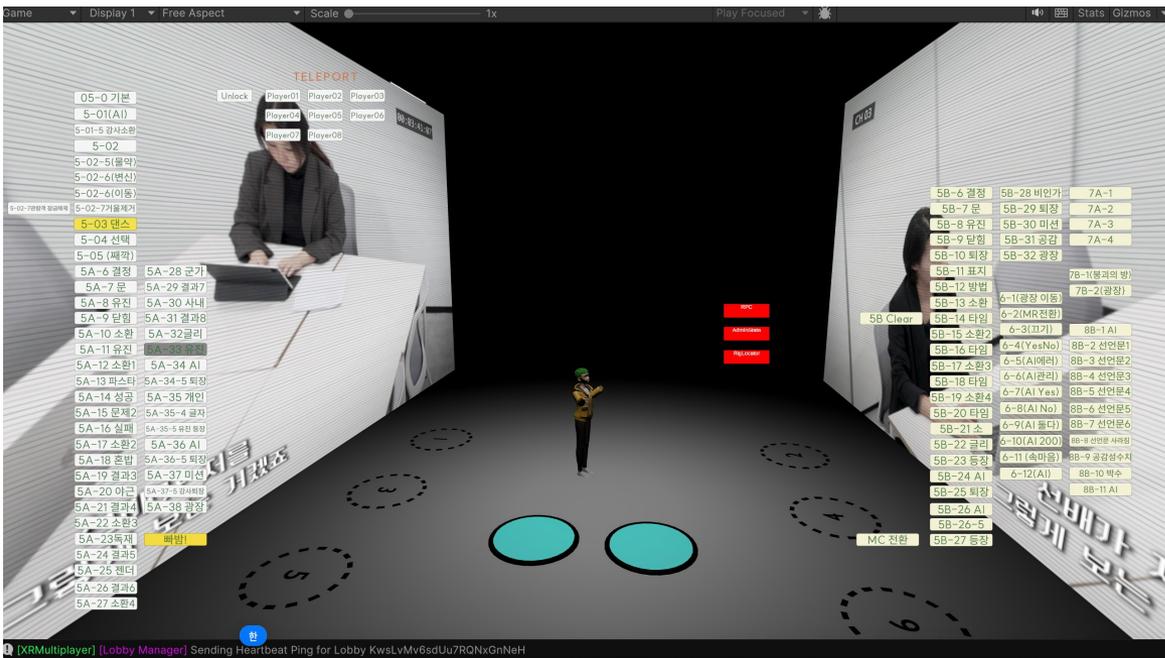
<디스트> <드라마티크/생생극단>

<비비비> <배우협회연극단연>

VR 영화 <소녀렐트라디오> <드라마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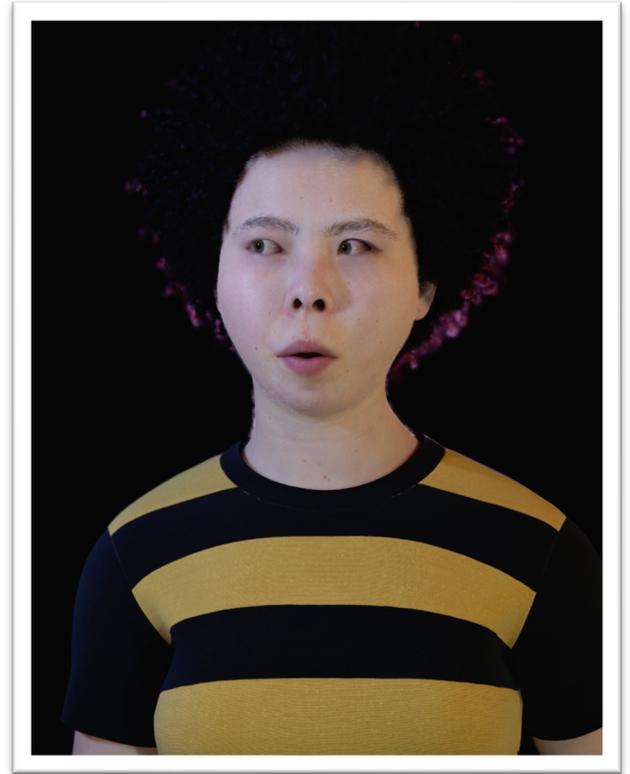
비비비, 2023 (협력아티스트/ 버추얼휴먼디자인)

일시 2023. 8. 8 ~ 8.19

장소 우란문화재단 우란2경

제작 우란문화재단

2023 동아연극상 작품상 수상작



다양한 비인간을 연기하던 배우가 '별'을 연기하기 위해 연습하는 과정을 담은 연극. 비인간 연기에 대한 고민이 현대 위기의 시대에 삶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는 공연이다.

장면 개발 및 버추얼 휴먼 디자인에 참여하였다. Chat GPT와 버추얼 휴먼을 워크숍을 통해 공연팀에 소개하고 신기술과 연극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작업이었다. 작품 개발 및 버추얼 휴먼 디자인에 참여하여, 가상 배우와 실제 배우의 상호 연기를 실험한 작업이다.



더스트, 2022 (영상디자인/ 드라마티그)

일시 2022. 7. 7 ~ 7.10

장소 연희예술극장

제작 사막별의 오로라

지원 서울문화재단



○ 작품 설명 :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 증가 속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 찾기
 배우이자 극작가인 밀리 토마스가 직접 쓰고 연기한 <더스트>는 작품의 1인칭 화자인 앨리스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을 맞이한 순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빠져나온 '몸'을 마주한다. 그리고 자신의 자살 이후 남겨진 주변 사람들의 시간을 꼼짝없이 목격한다. 앨리스는 자신의 죽음이 불러온 파장을 지켜보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적을 더듬는다.

○ 예술적 성취 : 1인극을 2인극으로 각색하여 다층위의 의미를 생성, 영상디자인 도입
 1인극으로 쓰여진 대본을 두 명의 배우가 연기하도록 각색하여 두 층위의 앨리스가 무대에 함께 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몸의 경험과 감각에 대해 주석을 달고 해석하는 구조를 강조하는 한편, 원작 대본의 언어에 의지한 설명을 덜어내고 비언어적인 몸의 감각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죽음과 삶을 오가는 앨리스의 심리와 몸의 감각을 무대 공간에 확장하기 위해 영상 디자인을 적극 활용, 프로젝션 맵핑을 통해 극의 상징적이고 시적인 부분이 극대화되도록 표현하였다.



망토, 2019 (작/ 연출)

일시 2019. 9. 1 ~ 9. 7

장소 신촌극장

출연 김훈규, 성수연, 이지민, 정대진

지원 서울문화재단



○ 작품설명 : 여자로 만들어지는 소녀 - 젠더 정체성의 고정관념을 비틀다

- 성별 정체성은 단지 여성과 남성이 수행해야하는 역할을 나눈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깊은 무의식에 자리잡고 있다. 빨간 망토 이야기에서 착안해 인간 욕망과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 작품에서 (남성이 연기하는) 이 작품의 '소녀'는 극 중에서 '여자'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자신의 여성성을 수행하는 데에 번번이 실패한다. 연기의 수행성과 젠더의 수행성이 만나는 지점을 확인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 예술적성취 : 성별 교차 캐스팅으로 정체성이 '연기'되고 있음을 밝히다.

2011년 초연한 후 2019년 재공연된 이 작품은, 젠더 정체성과 폭력, 착취 등 민감한 이슈를 다루며, 성별크로스캐스팅으로 정체성이 수행되는 것이란 점을 드러내었다.

김민조 연극 평론가는 [공연과 이론] 75호에서 "인상적인 것은 <망토>가 원작 동화 속에서 길어올린 정체성과 욕망의 문제를 젠더의 수행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다.(중략) 젠더 프리/젠더 벤딩 캐스팅이 의도와 효과 사이에서 표류하는 결과에 머무르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게 목격되는 시점에 <망토>와 같이 세련된 성과를 거둔 작품이 등장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고 평했다.



산책자의 행복, 2019 (드라마터그)

일시 2019. 11. 8 ~ 11.17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출연 황은후, 김정

제작 사막별의오로라

지원 서울문화재단





Makeup to Wake up 2, 2019 (공동창작, 드라마터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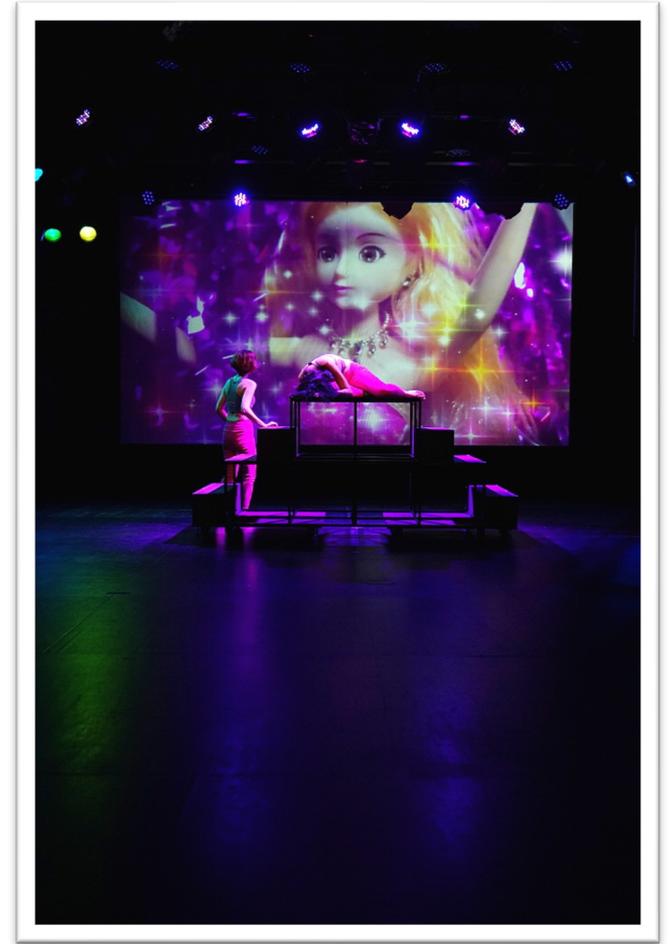
일시 2019. 7. 16 ~ 8.11

장소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출연 황은후, 김정

제작 사막별의오로라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창작산실 레파토리 지원작)





Makeup to Wake up 2, 2017 (공동창작, 드라마터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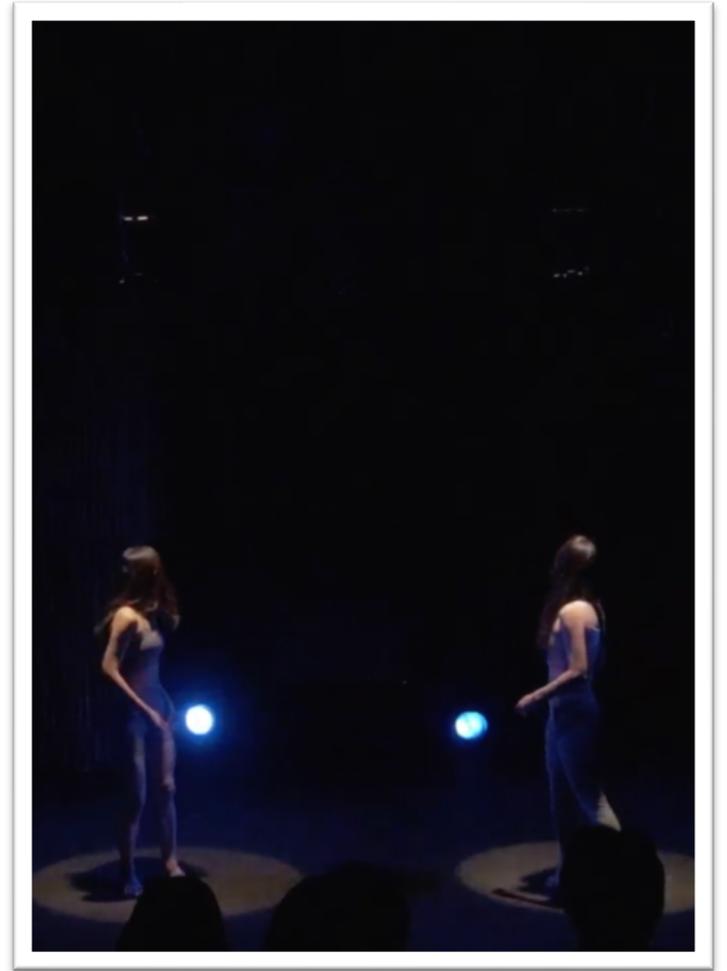
일시 2019. 3. 1 ~ 3. 5

장소 연극실험실 혜화동 일번지

출연 황은후, 김정

제작 사막별의오로라

지원 서울문화재단





남은 한조각의 세계, 2017 (드라마터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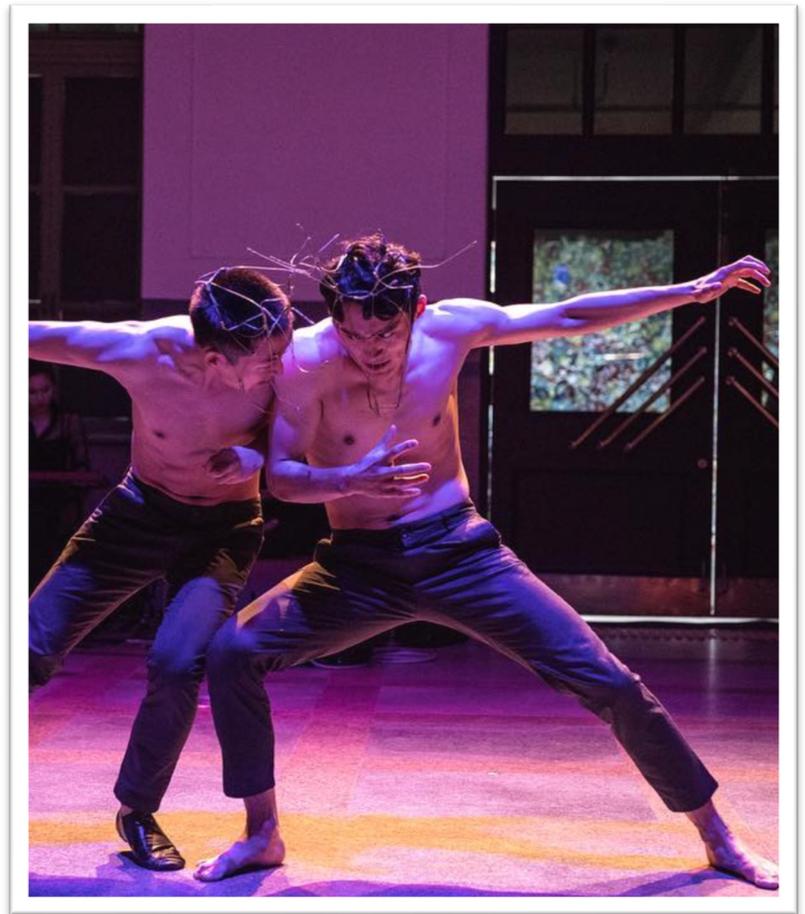
일시 2019. 7. 18 ~7.19

장소 서울역 284

연출 강하늘

제작 더 러빙 씨어터

지원 서울문화재단





10분희곡페스티벌, 2016 (연출)

일시 2016. 11. 20

장소 서울연극센터

작 남윤수, 김연재, 조은정, 김지선

출연 이지혜, 전석찬, 황은후

지원 서울문화재단





강박3 : 첫경험, 2016 (드라마터그)

일시 2016. 11. 15

장소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연출 박경미

지원 경기문화재단





붓, 2015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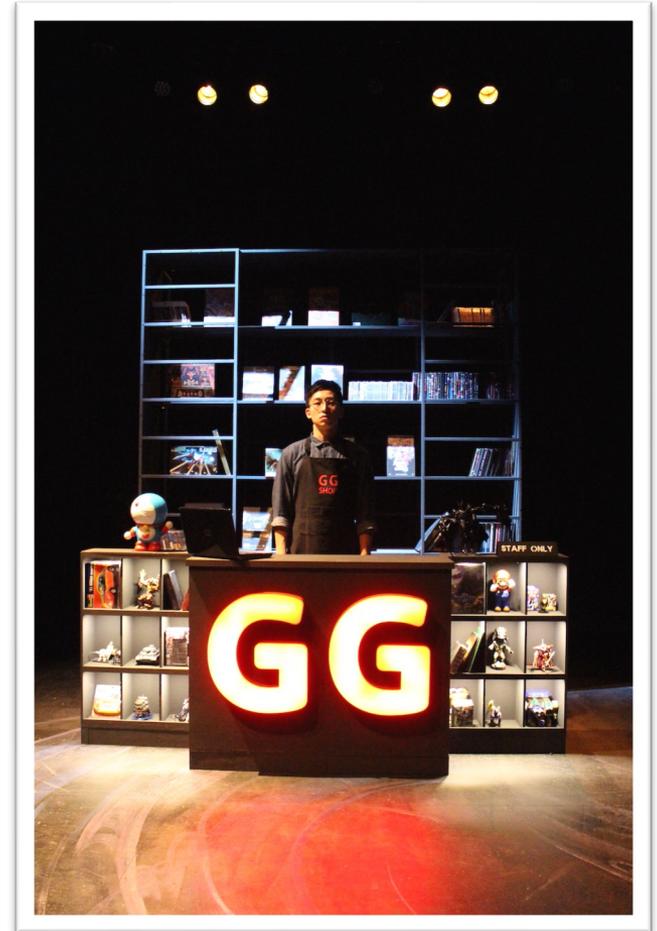
2015 9. 17~9.19 한국예술종합학교 상자무대

2015.9. 24~9.25 동자아트홀

작 김희진

지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제3회 청춘나눔연극제 희곡공모전 대상작





The Vacance 2023 (기획/레벨디자인)

작가 권세미, 방수연, 서의석

서강대학교/KIMAC 산학협력프로젝트

2024 CICA 실험영상 전시 참여

가상의 존재, Ditto (AI 캐릭터 모델 구축, 웹 아카이빙)

작가 권세미, 이다솔

CARE(comfort woman action for redress&education) 후원

Art with Impact 참가작

'위안부' 문제에 공감하는 AI <가상의 존재>와 대화하는 인터랙티브

다감각 설치 작업





소녀램프라디오 2022 (VR 드라마티크)

감독 채민혁

참여배우 김정 황은후 강하늘

관객 인터랙션 워크숍 및 모션캡처 워크숍 진행





Writing, etc.

- 그림 끝, 2015
- 유혹의 기술, 2008
- VIA EP, 2013
- 길 위의 낙서 프로젝트, 2014



그림 끝, 2015 (극작)

1도씨 희곡선 : 10분희곡릴레이 수록

지원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유혹의 기술1,2, 2008 (영상연출)

젠더스펙트럼 전시

일시 2008.7.30~8.5

장소 요기가 갤러리

주최 불길한 지혜



VIA First EP, 2010 (보컬)



길위의 낙서 프로젝트, 2014 (기획, 진행)

탈학교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일시 2014.7.31~12.11

장소 부천역 앞 상상마당

지원 예술인복지재단, 함께일하는재단

Press, Review



- 김태희, '페미니즘 연극 돌아보기',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제 1호』(연극비평집단 시선, 2017)
- 김민조, '친구로서의 페미니즘 - 권세미 연출가와의 만남', (공연과이론 2019)
- 유연주, '<페미수제연극:메이크업 투 웨이크업>: 코르셋 벗어던지고 날아오르다', (공연과이론 2017)
- 권세미, '미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우리는 그것의 창조자가 아니다', (예술과 젠더 잡지 NW 4.5)
- 장윤정, '11월 월레비평 <Make up to Wake up 2>' 『공연과이론 제 68호』(공연과이론, 2017)
- 권혜린, "행복하게 아름다울 것 <Make up to Wake up 2>', 『독립예술웹진인디언밤』,

“

“(…)(결국 여성성이란) 실체가 없는 허구적 개념에 불과하다. 이 실체 없는 허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품이 창작집단 사막별의오로라의 <Make up to Wake up2>(김정·황은후 공동창작·연출)이다. 여성의 미는 여성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특질 중의 하나다. 여성의 미의 기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 이 작품은 우리 사회의 미의 기준으로까지 확장이 되면서 다양한 문제의 층위를 만들어낸다.”

”

- 김태희, '페미니즘 연극 돌아보기',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제 1호』(연극비평집단 시선, 2017)

Press, Review